

자기소개서

소 속	○○고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1 성실과 책임을 깨우쳤던 어린 시절

진주 주변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손에 익히면서 자랐습니다. 당시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 대부분 경험한 것이지만 초등학생도 중요한 일손이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공부보다는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틈이 날 때마다 공부보다는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당시 생활을 돌이켜 보면 힘든 날들이었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가정형편 하에서 부모님께 힘들다는 말,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차마 드리지 못하고 묵묵히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애쓰시는 모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하겠다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성실함을 깨우쳐 주었고, 이러한 깨우침은 삶에 **성실과 책임**이라는 기본적 습관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성실성과 책임감은 학교 업무를 추진하고, 학생 교육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 가치관이 되어 32년 가까운 교직생활을 지탱한 힘이 되었습니다.

2 교사의 자리는 학생 옆이라는 교직원으로

32년 가까운 교직생활 동안 **‘교사의 자리는 학생 옆’이라는 교직원**을 가지고 **교직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동안 3학년 담임 9년(인문계고 8년, 특성화고 1년), 인문계고 학년부장 9년(3학년 부장 4년), 인문계고 교무부장 4년**을 하면서 기본적 담임업무는 물론 교무학사, 학년부 업무, 인성부 기획, 연구부 기획 등 대부분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첫발을 내딛었던 학년부장 교사는 이후 많은 관리자에게 저를 학년부장 교사로 각인시켰습니다. 학교 이동 시 전입해가는 학교마다 학년 부장교사의 보직이 주어졌고, 이러한 인연으로 모두 9차례 학년 부장 교사를 맡았습니다. 학년 부장교사 업무가 어렵고, 대부분의 교사가 기피하는 업무지만 9차례나 한 것은 ‘교사의 자리는 항상 학생 옆’이라는 교직관을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까닭이 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05년, 지원자는 농촌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를 했는데 ○○면에 거주하던 지원자의 학급 여학생 2명이 왕복 2시간 넘는 통학시간으로 야간 자기주도학습, 심화 보충학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화수업 수강이 필요했던 상위권 학생이라 두 학생을 학교 생활관에 기거(당시 기숙사 없음)하게 했고, 저를 포함한 3학년 담임교사가 반찬을 가져다주면서 식사를 챙겼습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학년부장 선생님과 더불어 일주일에 1-2회씩 숙직실에서 당직자 옆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학교 측 배려와 교사들의 사랑을 학생들이 알고 열심히 공부하여 한 학생은 서울대학교, 다른 학생은 국립대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2009년, 진주의 ○○고등학교에 전입해 첫째 2학년 담임과 인성부 기획을 맡은 후 다음 해부터 4년간 학년 부장 교사(3학년 부장 3년)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진주에서 으뜸가는 학교로 변화했지만 당시에는 대체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진학이 힘든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의기소침했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4년간 학년 부장교사를 맡으면서 중점적으로 마음을 쓴 영역이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이었습니다. 학업성적 부진으로 가정에서, 친구들에게서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자는 생각을 가졌고, 근무 기간 동안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3학년 담임교사 겸 학년 부장교사를 맡으면서 고려대, 경희대 등 수도권 대학과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등에 다수의 합격생을 배출하여 ○○고의 입시성적을 과거에 비해 한층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2학년 부장교사를 맡을 당시 담임선생님들과 노력하여 2학년이 치른 국가수준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월등히 상승해 학교장이 교육부 장관 초청을 받아 교육부를 방문하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살아났고, 등하교시에 교복을 입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손으로 교복에 이름표를 부착했습니다. 학생들의 자존감 회복은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를 **‘내 학교’**라고 인식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노력은 학생들의 학력향상, 우수한 대학입시 성적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저는 3년(2011~2013) 연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선정 학력향상 우수 유공 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3

성찰의 계기가 되었던 박사 학위논문과 대안학교 파견

저는 1990년대 말 교육현장에서 회자되던 학교붕괴 현상을 주제로 공립인문계 고등학교 학교붕괴 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2004년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논문 마지막 부분인 감사의 글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교사로서 걸어가고 있는 삶에 대한 자성적 고찰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교사로서 임용된 초기에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직생활 15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연수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교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한 준엄한 비판서로 읽혀져 할 내용입니다.

라고 자신의 심정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당시 학교붕괴 현상을 제도적 측면, 교사적 요인, 학생적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교사로서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교직생활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행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성찰했고, 학생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완성했던 박사학위 논문은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직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2019년, 1년간 대안교육 기관인 ○○교육원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비록 1년 동안의 짧은 파견 기간이었지만 교원 연수나 교과서에서만 접하던 대안교육의 현장에서 또다른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교감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직생활에서 학력향상, 대학입시, 자율학습에 매몰되어 있던 교수자의 울타리를 넘어서 학생의 변화를 기다리는 교육, 학생들이 다가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력향상에 매몰되어 있는 학교에서 소외당한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대안교육 기관 파견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소외된 학생,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듬어 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곤양고등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하며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을 공모하는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매우 박차대는 것을 1년 전, 교무부장으로서는 업무를 직접 추진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힘든 내부형 교장공모를 추진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곤양고등학교가 처한 현재의 문제점 극복, 미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곤양고등학교는 교직원,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급감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에 46명이었던 신입생은 다음 해부터 28명, 20명, 21명, 33명, 14명, 10명, 10명, 11명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에는 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신입생 수의 감소는 곤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학교 대부분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 학교가 겪는 문제라고 하여 이를 방지하는 것은 학교 존폐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형 교장공모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머무르는 교장이 아니라 곤양고등학교의 변혁을 주도할 교장’을 공모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곤양고등학교가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공문을 확인한 다음 날, 곤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환경적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곤양고에 근무했던 교사, 곤양 지역을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 곤양고등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한 후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의 해결방안, 학교의 발전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지면서 공모교장으로서는 곤양고등학교의 문제점 극복, 미래의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는 약 32년간의 교직생활 중 현재 9번째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9개의 학교 중 4개의 학교에서 신입생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입생 정원 확보를 위해 학교 홍보 기획과 제작에 참여했고, 일선 중학교를 방문해 우수한 교육과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신입생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농촌 지역에 위치)에서 교무부장으로 학교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신입생 홍보 기획 및 제작, 일선 중학교 방문을 통한 신입생 유치의 최일선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은 **곤양고등학교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며 곤양고등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교장**이 될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보통반 학급에 추가하여 특성화 학급을 신설하여 안정적 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곤양고 신입생 7명은 모두 곤양, 곤명 지역 학생으로서 앞으로 신입생 정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학생 유치, 학교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보통과에 추가하여 특성화 학급이 신설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업계열은 삼천포공고와 경남항공고, 농식품 계열은 경남자영고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 진로에 전망이 밝고, 전국의 특성화고에 거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산림환경자원 계열 학과 신설이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 봉화에 있는 한국산림과학고에서는 산림계열 졸업생을 배출(전국 유일)하는데, 공무원 합격(2020년 산림분야 16명), 관련 산업 분야 취업(2020년 산림민간 분야 15명), 대학진학(2017년 서울대 1명 합격 등) 등 성공한 특성화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자원 계열 학과를 신설하여 경상대학교 산림환경자원 학과와 연계한 수업프로그램 실시,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활용한 대학진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곤양고의 환경적,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산림환경자원 계열 학과 신설과 학교가 진행하고 있는 드론교육을 융합하면 성공적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선도할 학과, 산림치유 전문가, 산림자원 활용 전문가 배출, 그리고 대학진학 등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견인할 학과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경남 전 권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교 기숙사를 반드시 건립할 것입니다.

경남 전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환경자원 계열의 특성화 학급 신설은 기숙사 건립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곤양고는 이미 2010년 지역사회 도움으로 '솔골 공부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솔골 공부방의 맥을 잇고,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보통과와 특성화 학급이 상호보완해 발전하도록 24시간 돌봄의 기숙사를 건립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 맞춤형 수업과 능력,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특기적성 교육으로 성적관리, 대학입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드론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취미, 특기, 나아가 진로와 연계한 교육활동을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장-교사-학생-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된 소통 시간 확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욕구와 그 욕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찾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규칙을 학생이 개정하고 실천하는 교육, 지역의 소외 어르신, 다문화 아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 정신을 교육하겠습니다.

여섯째, 사천행복교육지구 연계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기관으로서의 학교 시설 사용, 지역인사나 동창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실시, 사천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꿈채움 자율동아리 활동, 마을교사 활용을 통한 행복한 학습공동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곤양 향교 연계 예절교육, 비봉내 생태마을 체험활동, 비봉내 축제 참가 등 꿈채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애향심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일곱째,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의 교육활동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 학교장 업무 추진비의 부서별 이관으로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덟째, 학교 홍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교 홍보를 통한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위해 학교장이 직접 TF 팀장을 맡아 발로 뛰는 학교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2020학년도에 교감 자격을 받았습니다. 32년 가까운 교직생활 동안 학교 중장기발전 계획, 대학입시 업무, 고등학교 입시전형을 기획하는 4년간의 교무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머무르는 교장이 아니라 변혁을 주도하는 교장'으로서 곤양고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명문고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